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 동향*

-미야기현 사례를 중심으로-

박 문 호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역의 식품산업과 농업을 네트워크하는 식료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2005년부터 식품산업과 농업을 하나로 묶는 ‘식료산업(食料産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역의 식품산업과 농업을 네트워크화해 클러스터를 형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료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식료산업클러스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두고, 전국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클러스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 농림수산성의 식료산업클러스터 추진시책

1) 식료산업클러스터 정책의 배경과 목적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산업과 농업을 하나로 이해하는 식료산업(食料産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지역의 식품산업과 농업을 네트워크하는 식료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농식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수입농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통시스템의 합리화와 국산 푸드시스템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료산업클러스터는 중요한 정책사업이 되고 있다. 식료산업클러스터는 지역의 식재, 인재, 기술 등의 자원을 유효

* 본원고는 2010년 10월5일부터 10월9일까지 “일본의 식품산업클러스터 동북지역사례조사” 결과와 “사례연구를 통한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참조하여 박문호연구위원이 정리한 것이다.(mhpark@krei.re.kr, 02-3299-4264)

하게 서로 연관시켜 새로운 제품, 새로운 판로, 새로운 지역브랜드 등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료산업클러스터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식품산업과 농림수산업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료자급률의 향상과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05년부터 ‘식료산업클러스터 전개사업’을 도입하였고, 그 후 각 현 단위에서 식료산업클러스터협의회가 형성되었다. 식품산업은 지역에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료산업클러스터 전략을 구축하는 현(縣)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식품산업이 중심이 되어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 대학·시험연구기관 및 행정 등을 포함한 산·관이 제휴하여, 지역의 농림수산물과 가공기술을 활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가공식품 및 지역브랜드의 창출, 판로개척 등의 사업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지향하는 집단으로 육성되고 있다. 즉, 식료산업클러스터는 2005년부터 식품산업과 농업을 하나로 묶는 ‘식료산업(食料産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역의 식품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서 시작된 사업으로서 농업을 네트워크화해 클러스터를 형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2)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 추진체계

일본은 식료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식료산업클러스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두고, 전국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클러스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2007년까지 47개 도도부현 중 46개의 도도부현에 식료산업클러스터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3) 식료산업클러스터 협의회의 역할

식료산업클러스터에서 중추적인 기구인 식료산업클러스터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식료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생산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대학, 시험연구기관 등이 함께 만나는 장을 설치하고, 다른 업종과의 교류·연계에 의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상품개발의 사업화, 지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원한다. 셋째, 각 협의회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각 지방의 식료산업클러스터협의회에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코디네이터는 식료산업클러스터 체제 구축을 정리하는 역할로서 사업창출 등을 위한 기획과 상담·연락 등에 대응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유통유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100여명의 코디네이터가 식품가공, 판매·유통, 상품개발, 생산관리, 농업 생산, 경영혁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식료산업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해 전국 각 도도부현에 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협의회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였다.

그림 1 식료산업클러스터협의회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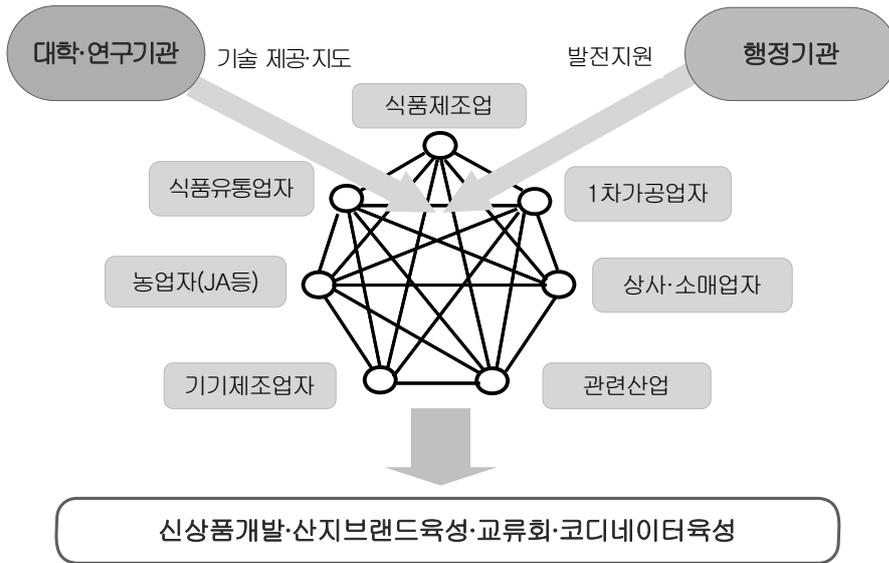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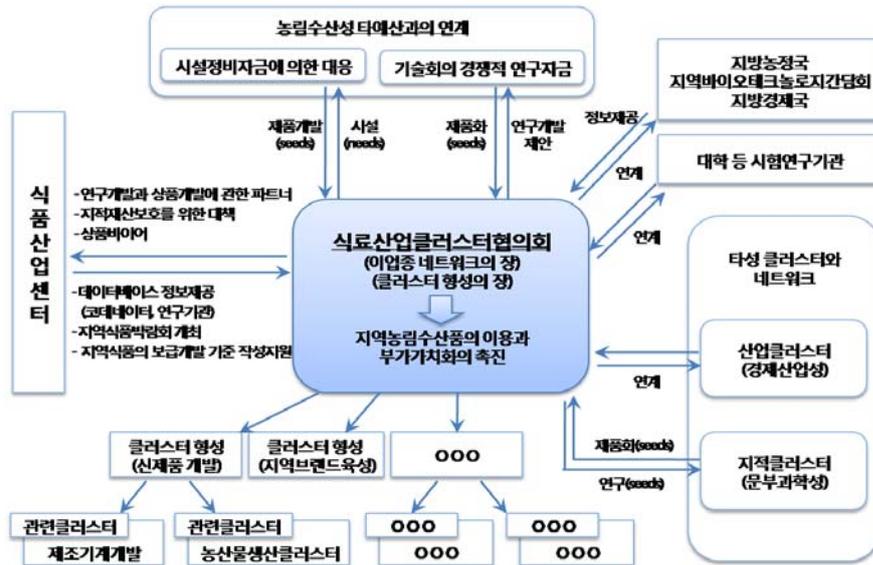


그림 2 일본 식료산업 클러스터 협의회 기능과 역할



2. 미야기현의 식료산업클러스터 사업추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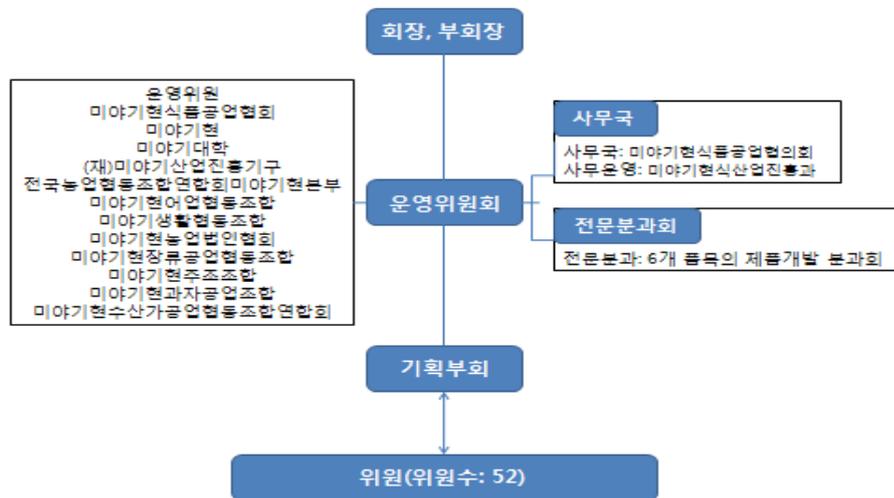
1) 미야기현 식료산업클러스터의 사업추진체계와 사업내용

일본 미야기현은 식료산업과 관·학과의 제휴를 통하여 유기적인 생산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시장개척 및 상품개발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야기현 식료산업클러스터 전체협의회」를 2006년 6월에 설립하였다. 미야기현의 식료산업클러스터사업의 추진주체인 식료산업전체협의회에는 생산에서 가공·유통에 관련된 여러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미야기현 식품공업협의회내에 설치되어있다. 클러스터 사업은 기획부회에서 협의를 거쳐 전문분과회에서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야기현 식료산업전체협의회는 현 내의 식재, 인재, 정보, 기술,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에 밀착된 식료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단체로서 식품제조업, 유통업, 생산단체, 대학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106개 업·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활동내용은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연 3회), 코디네이터 활동, 신상품개발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상품개발 및 판로확대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자부담이 50%이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국비와 현비로 추진되고 있다.

식료산업전체협의회는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코디네이터 활동, 신상품개발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3 미야기현 식료산업클러스터사업의 추진체계



<2010년도 주요사업내용>

- 식품제조진흥 프로젝트: 현 내의 1차 생산품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생산자·식품제조업자·대학 등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이 제휴하여 추진
- 식품제조업 진흥프로젝트: 현 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 등을 활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만들기에서 판로확대까지 지원하는 마케팅 사업
- 농상공제휴 가속화 추진 프로젝트: 현산 농림수산물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상공업자에게 제공하여, 농림수산업의 비즈니스 기회확대, 신상품 개발, 계약재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 등 지원: 중소기업지역자원활용촉진법 및 농상공제휴촉진법에 의한 사업화 지원
- 식품관련 사업 등 집적촉진사업: 식품관련 산업의 집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과 제휴하여 식품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 가공·업무용 야채산지 육성사업: 실수요자의 수요파악 및 이에 대응한 산지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가공·업무용 청과물의 생산 확대 및 논을 주체로서 산지화를 추진한다.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일관된 체제를 정비하여 논에 있어서 원예진흥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한 원예품목의 확립을 꾀함.

2) 식료클러스터사업에 의한 농·상·공 제휴사례: 이즈누마 농산

경영개요

이즈누마 농산은 1988년도에 창업한 유한회사로서 농업생산·가공·유통·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의 현재 매출액은 452,267천 엔이며, 종사자로는 주주 5인, 종업원 38명이 있다. 이들은 외판영업, 직판영업, 총무경리, 제조, 생산 환경의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성과에 힘입어 2008년 농림수산성의 “일본농업상”을 수상하였다.

부문별 사업추진현황(2009년 현재)

농업생산분야는 경종과 양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종부문에서 경영경지면적은 경영수탁 410a(논 260a, 밭 10a, 과수원 30a, 목초지 110a), 작목별 재배면적은 쌀 260a, 블루베리 30a, 야채 10a이며, 양돈부문은 법인소유 210두, 계약농가 두수 876두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가공분야는 돈육 및 채소가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제품 가공사업 판매액이 295,624천 엔(식육제품 284,050천 엔, 식육처리 11,574천 엔), 채소가공부문은 3,703천 엔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당 및 매장분야는 직영 레스토랑 매출액이 38,592천 엔, 농산물직판장 매출액 82,017천 엔, 백화점 매장 매출액 32,331천 엔이다.

정보 및 기술개발지원 네트워크

이즈누마 농산은 미야기현, 도메이시,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의 지도와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학교·연구소로서 동북대, 미야기대, 미야기산업기술센터, 미야기산업진흥기구, 미야기농업실천대의 컨설팅을 받고 있다.

경영 발전과정

▪ 취농·성장기(1975~1988)

1975년에 취농하여 수도작 4ha와 모돈 30두로 양돈 일관경영을 개시하고, 1982년 수도작 수탁집단지인 “오오카다생산조합”을 설립하여 규모 확대형 농업을 추구하였다.

▪ 전환기·법인창업(1988~1992)

1989년 계절편중의 수도작 생산은 고용의 확보가 어렵고, 양돈에 있어서도 항상 물질의 투여와 분뇨처리문제로 인하여 규모 확대형 농업에서 부가가치형 농업으로 전환을 결심하고 「이즈누마 농산」을 설립하였다.

「이즈누마 농산」에서는 생산·가공·유통의 일체화를 지향하여, 양돈경영에 추가로 햄·소세지 제조 판매와 농가레스토랑을 개업하였다. 1990년에 「유한회사 이즈누마농산」으로 법인화 하여, JA로부터 독립하였다.

▪ 성장기(1993~1999)

1993년 양돈경영 중지. 사양관리 인부 부족, 축사의 노후화 등으로 고객들에게 맛있고 안전한 돈육공급이 어렵게 되어, 지역 내 8농가에게 돈육생산을 맡기고 「이즈누마농산」에서 가공·판매하는 「지역 내 일관체계」로 전환하였다.

▪ 전환기(1999~2000)

2000년에 사육이전, 농업경영에서 탈피하여 도시민을 끌어들이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농가 직판소」 레스토랑을 개업하였다.

▪ 새로운 비약기(2000~)

2002년에 미야기현에서 개발한 새로운 양돈 품종(적돈)을 도입하여 상표등록을 하고 브랜드화 하였다. 같은 해 미쓰코시백화점 센다이점에 신상품브랜드 직영매장을 오픈했으며, 2004년에 홍콩수출을 개시하였다.

2006년에 경영주의 농지를 회사가 경영수탁하고,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하고 중단했던 양돈경영을 재개하였다. 「이즈누마농산」이 지역 및 농업을 코디네이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산자의 일원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 2007년에는 자본금을 30,000천 엔으로 증자하여 자본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기업 목표로 설정하여 “먹거리”와 “자연”을 소비자와 어린이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관내 이즈누마습지의 사계절을 느끼게 하는 「이즈누마습지자연학교」 개최(와인교실, 블루베리 체험, 이즈누마습지 감사제, 통신지 및 통신판매개시)하고, 직관부문의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제도(이즈누마습지구락부) 도입, 회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림 4 이즈누마농산의 연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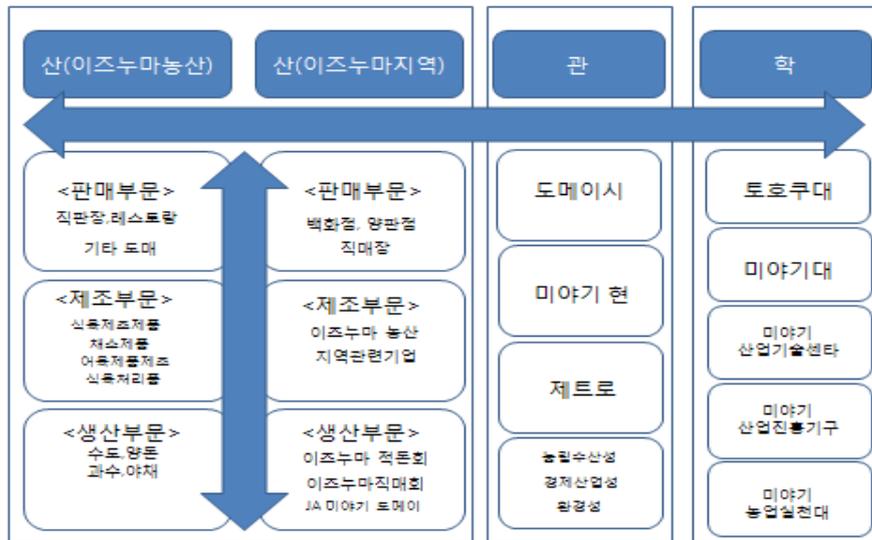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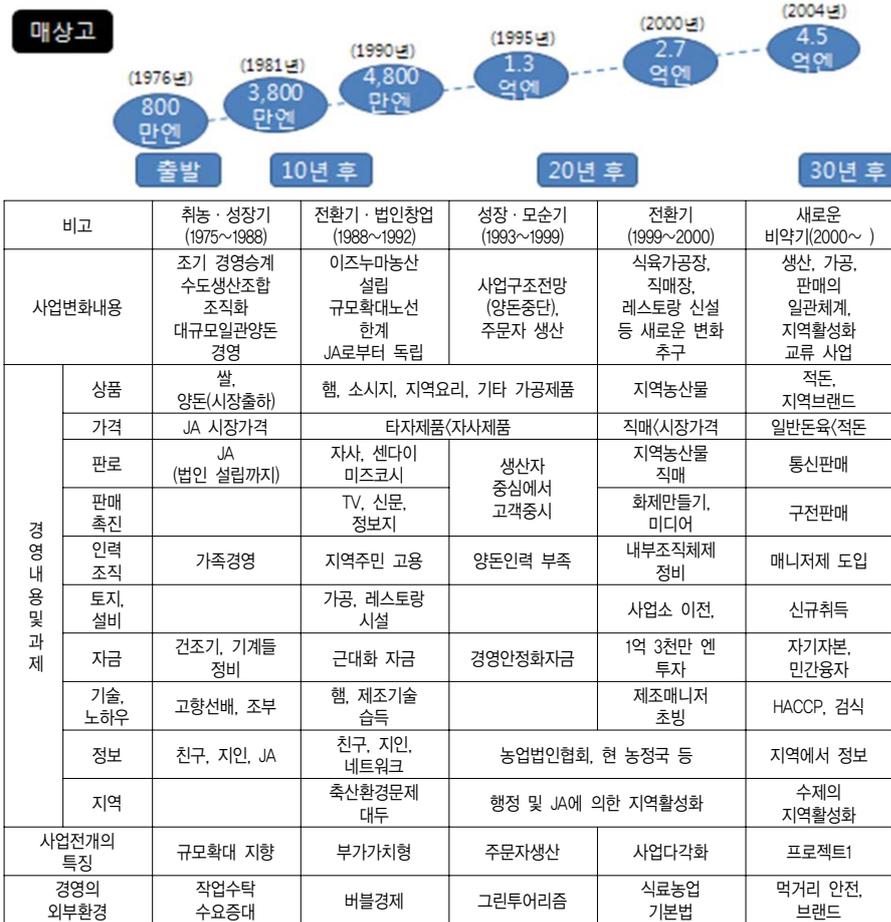


그림 5 이즈누마농산의 사업전개 과정



경영 사례의 특징

① 농업(農業)을 식업(食業)으로 바꾸다

취농 후 추구해온 규모확대형 양돈경영에 의문을 가지고, 부가가치형 농업으로 방향전환을 하여 「이즈누마 농산」을 설립하였다. 생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만 아니라 “농업에 책임을 가지고 안전한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서 농업을 식업으로 바꾸는 것을 기본 목표로 돼지 생산·가공·유통의 일체화를 추구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양돈경영과 함께 햄, 소시지 제조판매, 농가레스토랑을 개업하였다.

② 공급자 주도형에서 고객지향형으로 전환

창업당시 적자경영을 탈피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맞춘 상품개발의 필요성을 실감하여 소비자 관점에 기초한 경영을 전개하였다.

③ 지역 내 일관체계의 구축

노동력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맛있고,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1994년에 지역의 양돈업자 8호에 생산부문을 위탁하고 지역 내 일관체계를 구축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도시민을 농촌으로 부르고, 고향 농업자가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는 그린투어리즘의 실현에 발을 디뎠다. 농가직판소를 개설하고, 농가레스토랑 대부분의 식재료를 지역산으로 바꾸고, 지역의 전통 요리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창작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④ 고부가가치 축산경영으로의 도전: 적돈(赤豚) 브랜드 개발

지육가격이 떨어지고 사료값이 증가하여 양돈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야기현 축산시험장이 계통 조성한 품종을 개발하고, 이즈누마농산이 이를 등록종과 순수 교배한 육돈을 상표 등록하여, 지역의 양돈농가 8호와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육돈은 맛은 우수하지만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사양관리가 까다롭지만, 이즈누마 농산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철저한 생산관리와 안전, 안심을 추구하여 대규모 기업경영과 차별화한 희소가치의 상품브랜드화를 꾀하였다.

⑤ 적돈(赤豚)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

미스코시 백화점 샌다이점을 오픈하고 홍콩수출을 실현시키는 등 브랜드의 영향력을 키우는 프로모션 활동을 철저히 하였다. 그 결과 브랜드가격의 프리미엄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지육을 높고 안전한 가격으로 생산자로부터 살 수 있게 되어 계약농가 8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브랜드육 생산지역을 넓혀 이즈누마 농산을 중심으로 하는 농상공 제휴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3.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의 시사점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의 특징은 소프트웨어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여러 부처의 고유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부처 간 사업 중복을 피하고 있다.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의 특징은 첫째, 일본의 경우는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른 연계사업에서 지원하고, 클러스터 사업에서는 상품개발, 브랜드 지원 등 철저하게 소프트웨어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단위로 지역 내의 식품기업, 대학, 시험연구기관, 지자체가 상호 연대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즉 「핵심기업」으로서는 지역의 식품기업, JA관련 회사 등 「핵심연구기관」으로서는 대학(특히 공립대학), 독립행정기관의 연구기관 및 공설시험장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 현단위로 중추적인 기구인 「클러스터추진협의회」를 두고 있다. 「클러스터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생산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대학, 시험연구기관 등이 함께 만나는 장을 설치하고, 이업종의 교

류·연계에 의한 물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 상품개발의 사업화, 지역브랜드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배치하여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기획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클러스터추진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본의 「식료산업클러스터」는 「농림수산성」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처 고유의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 사업 중복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제산업성에서는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지역브랜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클러스터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셋째,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클러스터 협의회 내에서 행정사무,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브랜드 식품의 가공·유통 사업에 지자체의 직접적인 투자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농림부·단국대. “사례연구를 통한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 2008.

미야기현. “식료산업클러스터 관련정보”. 2010.

미야기현. “미야기현 식산진흥과 내부자료”

미에 카츠노. “식료산업클러스터에 의한 지역활성화에 대한 「학」 「관」의 공헌에 관한 조사연구”, 문부과학성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토론회자료. 2009.